

문화특리



부안군농기센터, 조경 봄꽃 분양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실 과소 및 읍면에 조경용 봄꽃을 오는 15일까지 분양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팬지, 페츨리아, 국화, 꽃양배추 등 계절별 다양한 화종으로 20여만 주를 생산해 분양하고 있다.

더욱이 이중 10만여 주는 부안마실축제 분위기를 한창 더해 줄 오스테오필럼, 페츨리아, 썬민, 버베나 등 13종의 화사한 꽃묘로 축제의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재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는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관광부안 조성을 위해 푸른도시화와 사회단체가 연계해 공원 및 시가지 등에 꽃 묘 식재 및 관리를 목표로 꽃 묘 5만여 주를 추가 분양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도 꽃묘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관광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김제교월동 복지동장제 운영

김제시 교월동(동장 박상문)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복지동장제'를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복지동장제』는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움이 손길에 필요한 이웃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복지대상자들을 찾아가 고충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발로 뛰는 현장행정, 위민행정의 본보기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도에 87가구를 방문하여 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도 현재까지 11가구를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복지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 많은데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지속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의회 임사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우천규)는 제210회 정읍시의회 임사회를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11일간의 총 일정으로 진행한다.

제210회 임사회는 3월 8일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안길만 의원의 "샘골 물 복지시스템 구축하자", 조상중 의원의 "정읍시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추진 제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다.

그리고 제210회 임사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전부 처리한 후 산회 할 예정이다.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상반기 의원 연찬회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 핵심 착안사항 및 결산검사실천기법을 배울 예정이다.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뒤 제210회 임사회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산림조합 나무시장 개장

봄철 맞아 품질 좋은 묘목 4월 중순까지 저렴하게 판매

싱그러운 봄을 알리는 나무시장이 개장했다. 정읍산림조합(조합장 김민영) 나무시장은 봄철을 맞아 조합청사 숲에ON마트 옆에 1,800㎡의 나무시장을 조성, 3월 2일 개장하여 4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담업을 밝혔다.

이곳 나무시장에서는 나무산기에 적기인 봄철을 맞아 품질 좋은 나무들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묘목 재배 입업인과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묘목 고르는 방법과 심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까지 지도하고 있다.

또한, 봄소식의 전파와 함께 각 가정에서 한그루의 나무라도 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정의 상품을 지

급하는 나무시장과 관련된 "SNS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음을 밝히며 정읍산림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무난한 일기 예보와 작황이 좋아 열매 가격이 다소 하락함에 따라 나무의 가격도 지난해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이용한 소량판매와 아파트 등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화훼류와 다육, 야생화 등의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상품 및 개량종에 대한 문의와 실제 열매가 대과인 대상왕 대추, 왕매실, 왕호두 등에 대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복분자, 블루베리, 오미자, 황칠, 꾸지뽕

등 약용수나 특용수에 대한 관심도 많이 보이고 있으며, 나무시장에 마련된 하우스 내에서는 봄을 알리는 화훼류와 야생화, 다육, 분재, 관엽 식물과 수생식물 등을 저렴하게 전시 판매하고 있어 어린이의 손을 잡고 온 가족들이 봄나들이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또한, 도시민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특별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읍산림조합에서는 지난해 11월 1나무 갖기를 권장하고 '나무나눠주기'행사를 산림청과 함께 오는 3월 19일(토)에 시행해 일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 계획하고 정읍을 가꾸는데 일조를 기할 생각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청 5층 중회의실에서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읍면장이 참석해 제4회 부안마실축제 담당 프로그램별 준비상황 및 운영계획, 축제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안군, 마실축제 프로그램 완성도 높인다

세부 실행계획 보고회... 전국 10대 축제 도약 집중

부안군이 제4회 부안마실축제 세부 실행계획 보고회를 갖고 부안마실축제의 전국 10대 축제 도약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군청 5층 중회의실에서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읍면장이 참석해 제4회 부안마실축제 담당 프로그램별 준비상황 및 운영계획, 축제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안군은 제4회 부안마실축제를 오

복을 누리는 축제의 땅 부안민의 색깔을 담은 전국 최초 소 도읍 거리형 축제로 개최하고 세계인과 함께 하는 동행축제의 원년으로 삼아 세계인과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부래민복(扶來滿福)' 퍼레이드, 위도 띠 밧놀이 재현행사, 슈퍼하이로 세계물총대전 등 대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 관광객이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60만 관광객 유입 및 대한민국 10대 축제로의 도약과 전 국민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며 주문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축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부안마실축제가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오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는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이달 6일부터 한 달 동안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한다

정읍 구도심활성화 위한 대학 운영

한달 동안 매주 목·일요일 밤

정읍시가 구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한다. 시는 "2017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신청한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이달 6일부터 한 달 동안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밤 7시~10시 총 8회 차 과정으로 운영된다. 자원 찾기와 전략도출, 현장견학, 사업 발굴, 주민 전체워크숍, 최종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참여인원은 3개 지역(우암태평회, 쌍화차거리, 새암길삼가번영회) 주민 30명과 전문가, 시민기획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교육지원팀이 함께 참여한다.

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달 동지역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최근 공모방식으로 심사를 통해 주민 의지가 강한 3개 지역을 입교지역으로 선정했다.

김생기 시장은 입교식에서 특별강의를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중점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도시재생 대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민참여형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보건소 '깨친맛값 음식점' 특강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는 7일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모범 및 지평선 깨친맛값(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이 적정한)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특강을 실시하였다.

지정된 모범음식점(43개)과 지평선 깨친맛값음식점(6개)은 청결한 위생 시설과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앞장서는 김제시의 대표 음식점이다.

이번 간담회는 위식문화 증진에 따라 나트륨 섭취에 대한 영업주의 마

인드 함양 및 인식강화를 위해 전통 음식 아카데미 정경미 원장의 "싱겁게 만들어 싱겁게 먹읍시다"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고, 봄철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여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 교육도 병행하였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밥 및 향상을 위해 모범·깨친맛값음식점이 먼저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평가 시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대표음식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한복소비를 내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김제시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김제시는 3월부터 지속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상에 설치한 에어라이트(고무풍선),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철거하

지도단속해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전환시켜 광고물관리 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활동에는 공무원과 공공근로사업자 등 단속반이 정기적으로 일제 출동하여 주요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하여 수시로 수거조치 하는 등 일제정비에 나선다. /김제=곽노태 기자

A large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부안오리샘) featuring various bottles and gift sets. The ad includes the tex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such as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and 'GIFT SET 2.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The background features a stylized map of Jeonju and a cartoon bear mascot.